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학교도서관에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

학교도서관을 맡은 지 7년이 된다. 교직생활을 학교도서관과 함께 시작했고 그 매력에 빠져 줄곧 학교도서관을 맡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교과담당교사로서 학교도서관을 맡아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도서관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오고 더 나아가 여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을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개성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은 아이들의 얼굴만치나 다양하고 또 저마다의 색깔이 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자신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드넓은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책 앞에 평등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이들은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대도시에 있든 산골 벽지에 있든 누구나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좋은 책을 누구나 마음껏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 일구어 나갈 어른들의 과제이다. 이 땅의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서로 믿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주체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학교도서관이 바라는 바이다.



이 성 학*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 인천예일고등학교 교사, fool70@hanmail.net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도서관만한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터전인 학교도서관은 책 읽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꼽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수업을 하는 공간, 정보와 자료를 찾는 공간,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조하는 공간, 그리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과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학교도서관이 인근의 공공도서관처럼 많은 장서와 좋은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생활권 가까이 에 있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학교도서관은 문화와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공간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주민들의 여가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문화 공간이자 여가 활용 공간이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파편화된 정보들이 넘치는 사이버 세계에 갇힌 아이들을 책과 함께 하는 사색과 성찰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학습 공간, 문화 공간으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적인 만남과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권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양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설과 자료가 갖추어진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인적 자원, 즉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학교도서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혹한 전쟁의 상흔 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1950년대 말, 교육 재건을 통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위 '새교육'이라는 교육개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과거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토론식 교육을 주창하고, 교과서 중심의 지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료 중심의 경험 교육과 자율학습을 제시한 것이다. 즉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학습의 방향으로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한 일이 각 학교에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었다.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은 장서의 확대, 공간의 마련, 사서교사의 마련이라는 현실적 여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기능과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어야 한다. 스스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곳, 지식과 교양에 대한 충족 욕구의 자극, 돌아보는 여유와 쉼이 있는 공간,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고와 문화 등 학교 도서관이 학교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학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혼자서 꾸는 꿈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한다.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꿈을 학교도서관에서 꾸고 싶다. 학교도서관에는 우리의 꿈이 있다. 학교 도서관에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 그 오래된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싶다. 